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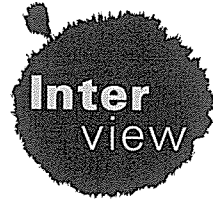


노동부 / 이상수 장관

* Profile

-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 광주지방법원 판사
- |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 노동위원장 · 정책조정위원장
-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 · 사무총장
- |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
- 지구당 청당심의위원장
- | [現] 제22대 노동부 장관

노동부 이상수 장관



Q 장관께서는 취임 이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굵직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근래에는 ILO 아태지역 총회 개최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등 활동력 있는 장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간 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장관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A 우선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근 7개월 동안 실 새 없이 달려 온 것 같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토대로 장관으로서 나름의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사람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적재적소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체제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금년 7월 고용지원센터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를 전진 배치하였으며 자체청사도 조기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대적 홍보를 통해 인식도 높였습니다. 아울러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쉽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특화대책을 마련하였고, 범정부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도 이달 중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외국인·고령자 등 취약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 개선 등의 노력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여 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합의를 도출하고 선진화방안 등 현안에 대한 노

사정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태국 방콕에서만 열리던 ILO 아태총회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험을 쌓아왔던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보람도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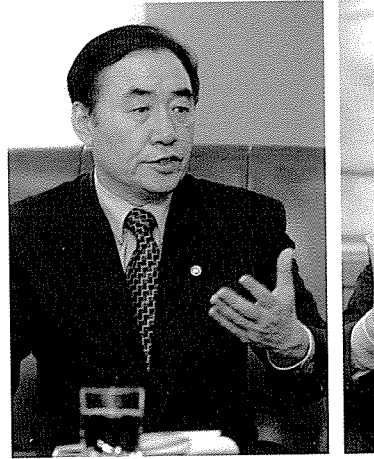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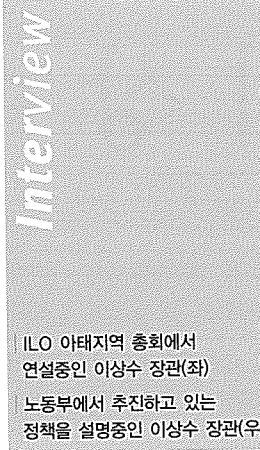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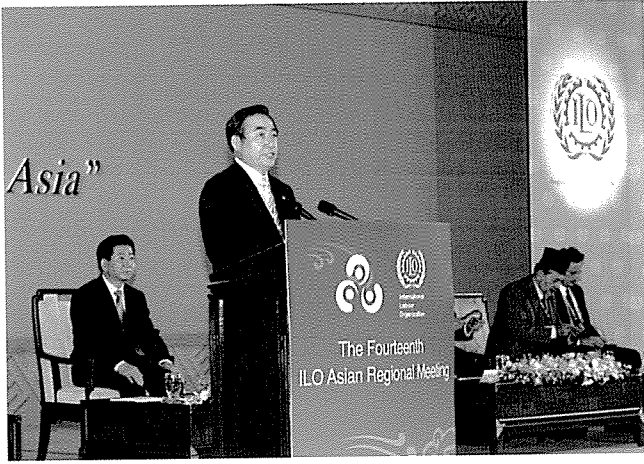
Q IMF 당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규제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대 등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IMF 당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면제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이후 재해율이 증가하는 등 규제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05년 산자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규제복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ILO 태태지역 총회에서
연설중인 이상수 장관(좌)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중인 이상수 장관(우)

Q 최근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분야 중점 추진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건설업은 작업공정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하고 주로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중층적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수행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05년도에 건설현장에서 16,000여명이 사고를 당해 그 중 60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맞는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유도,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등 공사참여주체의 역할 제고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구부 인접작업' 등 사망재해 다발작업 20개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금년 9월부터는 사업주의 범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지도·감독만으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가 참여하는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해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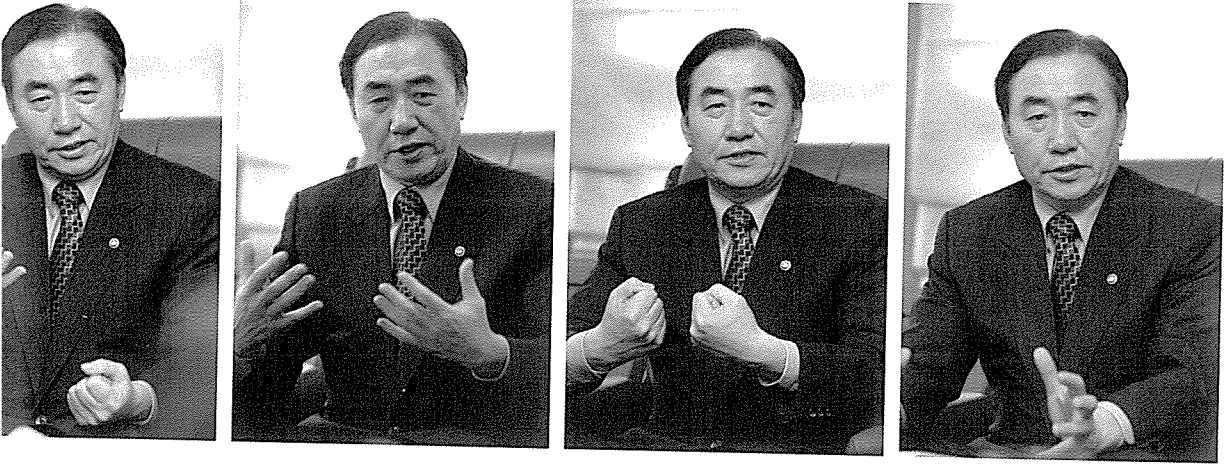
SOC 건설공사현장에서 "노·사 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산재취약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공사의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 미보고 적발시 PQ 평가를 감점하는 등 건설업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Q 최근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 상담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배경과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최근 노말핵산에 의한 집단 신경장해,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 및 DMF(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사망사건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병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작업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자신의 건강문제를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1부터 외국인 근로자 직업병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웹 기반의 「보건상담실」을 산업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뿐 아니라 Fax나 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영어를 사용하는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이상수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설안전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향후 노동부의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사가 같이 노력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안전보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드는 비용은 손실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또한 산업재해 예방의 한 주체로서 모든 안전

활동은 근로자 자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산재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Q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임해주신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관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A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1986년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지정받아 설립된 이래, 그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